

데살로니가후서: 함께 읽는 성경 공부

신자들은 박해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불안한 주장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요?

데살로니가후서는 인내를 격려하고, 주님의 날에 관한 혼란스러운 주장을 바로잡으며, 공동체의 지속적인 무질서를 다룹니다. 목적은 현대의 악인을 특정하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정과 신실한 행동입니다. 어려운 미래의 이미지를 굳게 서기, 기도하기, 책임 있게 일하기, 잘못된 신자를 형제자매로 대하기라는 분명한 권면과 함께 읽으세요.

편지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읽기

첫머리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를 밝힙니다. 바울이 직접 썼다면 데살로니가전서 직후라는 연대가 전통적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바울 전통 안에서 활동한 후대 저자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며, 저자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편지는 2장에서 논의하는 모든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 상기시키는 말들은 수신자들이 이전에 받은 가르침을 전제하며, 현대 독자는 이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성경 참조: 살후 1:1-12 · 살후 2:5 · 살후 3:17

출처: primary, brown

논증 따라가기

흐름은 감사와 의로운 심판의 약속에서 주님의 날에 관한 해명으로, 이어서 기도와 실제적인 교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는 존재, 불법의 인물, 마지막 사건들의 순서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해석의 한계를 아는 것도 책임 있는 읽기의 일부입니다. 일하려 하지 않는 것에 관한 지침은 일할 수 없는 것과 구별해야 하며, 권징은 마지막의 평화를 향한 부르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 참조: 살후 2:1-17 · 살후 3:1-18

출처: primary

압박 속의 인내

살후 1:1-12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의 성장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약속은 불의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고 독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신자들에게 복수를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구합니다.

생각해 보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은 반대자를 해치려는 욕망이 되지 않으면서 인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나요?

쉽게 흔들리지 않기

살후 2:1-12

편지는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주장을 바로잡습니다. 배교, 속임수, 제어, 심판에 대한 설명은 독자들이 이전에 받은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본문이 그런 동일시를 확립한 것처럼 인물들을 현대의 특정인과 연결하지 마세요. 경고의 목적과 추측에 따른 재구성을 구별하세요.

생각해 보기

순서와 정체가 불확실하게 남아 있어도 속임수의 위험에 관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굳게 서서 기도하기

살후 2:13 – 살후 3:5

불안한 이미지 뒤에 감사와 격려가 이어집니다. 수신자들은 받은 가르침을 굳게 붙들고 복음의 전진과 악에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면받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미래의 모든 사건에 대한 비밀스러운 설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생각해 보기

질문들이 남아 있을 때 믿음을 지탱하도록 편지가 공동체에 주는 실천은 무엇인가요?

책임 있는 일과 회복을 위한 교정

살후 3:6-18

바울의 노동 모범은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어지럽히며 일하려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지침을 뒷받침합니다. 본문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돌봄을 거두지 않습니다. 경계가 필요할 때도 적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자매로서 권면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평화를 구합니다.

생각해 보기

공동체는 일하려 하지 않는 것과 일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멸시 없이 교정할 수 있나요?

출처

- [primary] 2 Thessalonians; primary biblical text. Reading references only; no Bible text is reproduced in this resource. <https://ebible.org/eng-web/2TH.htm>
- [brown]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 26. Background and scholarly discussion; not an endorsement of every interpretation in this study.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study-2-thessalonians>